



웹캐스팅 산업 활성화의 첨병 ‘IT공익인터넷방송국’

인터넷 방송 산업 육성 위해 개국

전문 채널가이드로 전환 각종 정보 서비스 제공

한국인터넷방송협회와 한국정보문화센터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IT공익인터넷방송국은 지난 2001년 12월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IT산업 관련 주요 정책 및 기술 등을 제작방송하고, 건전한 웹캐스팅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개국됐다. 방송국은 그간 ‘미아찾기’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고 ‘디지털 경제교실’, ‘엄마도 네티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사회 공익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왔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웹캐스팅 채널가이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트를 대폭 개편하고, 인터넷 방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웹캐스팅 산업 활성화의 첨병으로 자리잡고 있는 IT공익인터넷방송국의 현황과 서비스,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취재 신종훈 기자 / 사진 이해성 기자



다양한 IT정보에 대한 동영상 서비스 제공

IT공익인터넷방송국은 지난 2001년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웹캐스팅 산업의 활성화와 사회 공익 실현을 위해 설립됐다. 때문에 방송국은 그간 ‘이산가족찾기’, ‘미아찾기’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함께 IT산업 발전을 위한 IT뉴스, IT정책 전달, IT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제작, 방영했다.

그런 공익인터넷방송국이 지난 4월 웹사이트의 대대적인 개

편과 함께 채널가이드 중심의 웹캐스팅 정보 전문포탈로 탈바꿈했다. 당초 웹캐스팅 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이전까지의 모습이 IT전반에 대한 현황보도와 정보전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후에는 인터넷 방송 산업 중심의 전문포탈로 다시 자리매김한 것이다.

김옥룡 사무국장은 “이전까지 인터넷 산업 전반에 대한 소개와 홍보 창구로 활용돼 온 IT공익 인터넷방송을 국내외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소개와 방송사 정보를 제공하는 웹캐스팅 전문



채널가이드로 전환키로 결정했다”며 “웹캐스팅 관련 최신 기술 동향과 장비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술정보 서비스를 대폭 늘려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국내 인터넷 방송 산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DB화하는 등 전환 작업을 수행했으며, 이후 158개 회원사들의 주간 편성표·채널리스트·방송사 관련 정보를 중점 제공하는 등 웹캐스팅 전문 채널가이드로 성격을 바꿨다.

웹캐스팅 전문 채널가이드로 변화

협회가 방송국의 성격을 웹캐스팅 전문 채널가이드로 전환한 것은 그간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기술 관련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정작 웹캐스팅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사무국장은 “웹캐스팅 산업은 그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에 비해 일반인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왔다”며 “지상파 방송국 3사가 대부분의 방송콘텐츠를 독점하고 있어 뉴미디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첨병 역할을 담당해야 할 웹캐스팅 산업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웹캐스팅 산업의 경우 현재 인터넷 방송국의 수가 500~600여개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방송국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일반인들은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면 우선 성인방송국부터 연상하기도 한다. 김 사무국장은 “성인방송이 인터넷 방송 산업의 발전에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인터넷 방송에 있어 성인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공익인터넷방송은 왜곡돼 있는 국내 인터넷 방송 산업의 현실을 바로잡고, 뉴미디어 시대를 준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작하는 한편, 인터넷 방송 업계 지원을 위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협회는 국내 인터넷 방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웹캐스팅 교육사업과 지원센터의 운영이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 정부와 함께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회원사들의 해외시장 진출 및 정보교류를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실제적인 노력들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 사무국장은 “정부의 정책 역시 인터넷 방송 등 차세대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협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지금은 업계에서도 고품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인터뷰 / 한국인터넷방송협회 김옥룡 사무국장



▶IT공익인터넷방송국의 설립 계기는.

-IT공익인터넷방송은 인터넷방송 산업을 활성화하고 IT 산업발전과 건전한 정보화 사회정착을 위해 설립됐으며, 정보통신부의 지원 하에 운영되는 IT전문인터넷 방송으로 인터넷 방송 관련 가이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사이트 내용은 크게 인터넷방송가이드와 IT정보로 구성되는데, 인터넷 방송 가이드 메뉴에는 각 방송국의 편성표와 인터넷방송 장르에 대한 채널별 구성, 주간 이슈콘텐츠를 소개하는 채널 view 등이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향후 계획은.

-현재 방송국은 주요인터넷방송국 소개 및 리스트 제공 서비스, 웹캐스팅 관련 장비, 솔루션 정보 및 관련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인터넷 방송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 방송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즉 IT공익인터넷방송국을 찾으면 인터넷 방송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정보포털로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는 웹캐스팅 교육과 지원센터 설립 등 인터넷 방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터넷 방송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힘쓰겠다.